

유차니(환경조경디자인학 2021)
김정원(환경조경디자인학 2021)
이지운(환경조경디자인학 2020) | 12면 인터뷰

'아슬라 학생상'에서 환경조경
디자인학과 학생 세 명이
지난 5월 '일반디자인'
부문 명예상을 받았다.
이들을 만나 작품에
담긴 고민과 준비
과정을 들어본다.

유차니



중운위, 불참 사유서 승인 기준 · 대리인 자격 관련 세칙 부재 | 2면 종합

중운위가 연이은 불참을 이유로 미술, 치과, 의대 학생회장의 중운위 자격 박탈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중운위 불참 사유서 승인 기준과 대리인 자격에 관한 세칙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 1749 호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대학주보

재정운용간담회 열려 등록금 인상여부 미정 올해 인상분 인프라에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서울】 재정운용간담회가 지난 25일 청운관 B117호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올해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 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기획조정처 김영진 예산담당과 엄규민(경영학 2020)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들이 참여했다. 올해 예산 현황과 등록금 인상분 재원 투입 현황, 내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 팀장은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이 약 100~110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주요 투입 분야는 ▲교육시설투자(45~50억 원) ▲장학금·학생지원비(35~40억 원) ▲연구비(20억 원)다.

등록금 인상분은 교내 인프라 개선에 적극 반영됐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생회관 환경 개선 공사와 일부 건물 방수 공사,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가 대표적이다. 국제캠퍼스는 체육시설 리모델링, 건물 화장실 리모델링, 건물 방수 공사 등을 예로 들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 학교 측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등록금 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논의 중”이라며 “만일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인상률 상한선은 3%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등록금 인상분을 놓고 교직원 임금과 관련한 학생 질문이 나왔다. 정경대 학생회 신하균(사회학 2023) 회장이 “등록금 인상 이후 교직원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팀장은 “우리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은 5% 인상을 요구하

고 있다”며 “타 대학은 등록금 인상과 함께 교직원 임금도 2~3.5%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학교 교직원 임금 협상은 아직 본교섭 단계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설 및 인프라 관련 질문도 있었다. 약학대 학생회 정예원(약학 2022) 회장은 “의학 및 약학계열은 기존 등록금이 높아 등록금 인상분이 타 학과보다 높은 편”이라며 “메디컬 계열 학우들을 위해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김 팀장은 “의학 계열을 위해서만 예산 집행을 발제하진 않지만, 의학 계열을 위한 공사가 많은 편”이라며 “등록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만큼 의학 계열에 자율예산이 더 많이 집계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본예산 외에 배정·집행되는 추가 예산 사용처도 공개됐다. 학교 측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추가 예산이 ▲시설 관리비(47.7억 원) ▲교내 장학금(24.4억 원) ▲학생지원비(11.5억 원)에 쓰였다고 밝혔다.

학생지원비는 주로 현장 실습 학기제나 외국인 유학생 단체 보험 등에 쓰였다. 연구비는 별도 증액은 없었으나, 집행액은 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억 원 증가했다.



기획조정처 김 팀장은 “내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인상된다면 상한선은 3% 내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진=김규연 기자)



미대 김동연 교수 퇴임 기념전 <<청출어람 靑出於藍>>, 교수부터 학부생까지 전시 참여

미술대학 김동연(미술교육학) 교수 퇴임 기념전 <<청출어람 靑出於藍>>이 지난 20일까지 우리학교 미술관 KUMA에서 열렸다. 그와 연이 있는 교수진과 그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전시에 참여했다. 1층에는 김 교수의 작품이, 2층에는 대학원생 작품이, 3~4층에는 학부생 작품이 전시됐다. 김 교수는 “4층의 미술관을 가득 메우며 교수로서의 시간의 보람과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큰 의미를 주는 전시였다”며 “기획하고 준비해준 모든 교수님들과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조한음 기자)

“AI 활용 연구지원에 최우선” 폐해 예방할 교육도 병행해야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연재-대학 AI 위원회 출범
② AI 활용에 대한 구성원 의견

우리학교는 지난 8월 AI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학 차원의 AI 시스템을 구축해 영역 전반에서 혁신적인 활용을 실현해 가는 것이 목적이다. AI 위원회가 아직 출범 초기 단계인 만큼, 우리신문은 타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고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4회에 걸쳐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우리신문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묻는 ‘우리학교 AI 활용 관련 학생

교수자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지난 23일부터 3일간 실시했다. 또한 교수 11인과 학생 7인에게 연구와 학업에서 AI를 활용한 경험 및 향후 우리학교 AI 시스템을 향한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설문조사에서 AI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구성원들은 AI 활용에서 ‘글쓰기 및 전반적인 작업용 AI인 챗GPT, Grok, Gemini 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AI 활용 목적은 정보·지식의 활용(자료 검색, 정리, 분석, 학습 지원 등)이 컸다.

우리학교 구성원, AI 활용
연구 지원에 가장 많은 응답

우리학교 구성원들은 AI 활용에서 무엇보다 ‘연구 지원(논문 검색·정리, 데이터 분석, 실험 보조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3면에 계속 →

사령

명 <정기자>
강다윤(일본어학 2025)
김가빈(미디어학 2024)
김민영(미디어학 2025)
김예찬(스포츠의학 2025)
도은요(응용수학 2025)
박류빈(사회학 2024)
서라수(사회학 2025)
서민주(스포츠의학 2025)
오승현(정치외교학 2022)
이서현(미디어학 2024)
이수연(의상학 2024)
이은서(경영학 2024)
이주은(환경조경디자인학 2024)
이재형(무역학 2025)
조한음(미디어학 2024)
천유정(프랑스어학 2024)
최단(주거환경학 2024)
한민(철학 2025)